

■ 특별기획 '맞춤포교' 인프라를 구축하자

테마별 유기적 전략 절실

각 종단 예산·인력 10% 안팎 ... 거시적 안목 길러야

1. 프롤로그 - 포교, 지금 이 순간의 사명

독실한 불자인 이승은(42·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씨는 최근 한 아파트 입주 설명회에 가서 몹시 가슴이 아팠다. 설명회장에 들어서기 무섭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들고 다가오는 사람들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씨가 올 가을 입주 할 아파트 단지 인근의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다. 손에 커피와 교회를 홍보하는 리플릿을 들고 다가오는 사람은 한 두 사람이 아니었다. 어림잡아 다섯 곳의 교회가 '전도 경쟁'을 하고 있었다. 그 상황에서 이씨의 뇌리에 떠오른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올 가을 한동안 극성스러운 개신교 신자들에게 시달릴 것이라 예감이었고 또 하나는 부처님의 '전도선언'이었다. "자, 전도를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인천의 이익과 행복과 인락을 위하여. 그리고 두 사람이 한 길을 가지 말라."

독립시킨 조계종의 경우 올 한해 일반회계에서 포교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6.8%가 감소된 12.2%. 태고종과 천태종 진각종도 10~12% 선이다. 또 이들 종단의 중앙 종무기관에서 포교관련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은 전체의 10% 안팎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계종의 경우 종단

다 부족하다'고 토로한다. 그러나 무엇이 어떻게 왜 부족한가를 구체적으로 진단하는 데는 섣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으로 귀결된다. 포교에 관련한 한국불교는 아직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증거다.

이유는 있다. 그간 개인적인 원력에 의지 해 온 포교의 성과들을 통합하거나 현장의 시행착오, 성공 사례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포

여지고 있고 문화 영역에서도 재능 있는 스님과 불자들이 무대를 넓혀 가고 있다. 사이버 공간과 복지 현장, 농어촌 지역과 해외를 향한 포교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군부대와 교도소는 물론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 곳에서도 포교 원력을 세운 불자들이 분주히 뛰고 있다. 증생의 근기에 따라 법을 선택한 부처님의 자상함처럼 각계각층에서 포교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

템플스테이와 산사음악회의 경우 대표적인 '포교 상품'으로 시대를 풍미하고 있다. 그렇다고 아무 사람이나 잘 되는 것은 아니다. 기획의 전문성과 프로그램의 질적 우수성 등 관객들의 욕구충족이 될 때 성공하게 된다.

부처님 오신날을 '경건한 의식의 날'로 삼는 사찰과 '즐거운 축제의 날'로 삼는 사찰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전자의 경우 해마다 등 켜는 신도가 줄어든다고 한탄하지만, 후자의 경우 다음해엔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주민들과 만나기 위해 노력한다.

이제 맞춤포교는 전형을 다듬는 단계도 넘어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인프라다. 포교현장을 뛰는 인력은 물론 성공담과 실패담, 분야별 노하우 등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때 포교전략과 비전이 생성될 수 있다. 사회는 점차 디지털 방식으로 분할되고 있다.

'맞춤 포교'가 다문화 다양화 시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포교 현장의 타깃 혹은 테마별 인프라 구축은 불교의 미래다. 포교는 지금 이 순간 보다 치밀한 전략에 의해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불교계 공동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임연동·김현우·김지연 기자



그림·박규원

이 선별한 포교사들에 대한 지원 체계는 거의 없고 포교사들의 법문이나 의식집전을 금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스님들은 많다.

태고종도 전법사를 선별하지만 종단차원의 활동 지원이나 체계적인 관리는 미약한 실정이다. 각 종단의 한 해 포교 예산과 인력 현황, 즉 '1할 안팎'이라는 수치가 한국불교의 포교 마인드를 비추는 거울이라면 이는 '슬픈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포교 없이는 불교의 미래도 없기 때문이다.

포교 현장을 뛰는 사람들은 '포교의 초석이라 할 '패러다임'이론의 틀'과 '인프라기반 구조'가

교 전략의 이론적인 틀을 구축하는데 무관심했던 것이다. 이런 현실은 바로 포교에 대한 연구부재로 이어진다. 포교관련 강이나 서적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타 종교에 비해 극히 드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악순환의 고리에는 전문 포교사에 대한 관리 소홀과 미래를 내다보는 거시적인 안목의 부재도 큰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원력은 모을수록 '큰 힘'

이러한 가운데 '맞춤포교' 시대는 열리고 있다. 직장인들의 신행 활동 마당에 해를 거듭 할수록 넓

해인사 법보전 비로자나불좌상 현존 最古 통일신라 木佛

해인사 법보전 비로자나불좌상
비로자나불좌상

해인사 법보전 비로자나불좌상 안에서 발견된 이 먹글씨가 미술사에 새 장을 열었다.

중화(中和) 회종의 연호 3년은 통일신라시대인 833년으로, 법보전 비로자나불좌상은 현존 유일의 통일신라시대 목불이 된다.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목불로 알려진 서산 개심사 아미타불좌상(1280년 보수)보다 400여년이나 앞선 것이다.

해인사주지 현승은 진흥섭 문화재위원(국보지정분과), 이화여대 강우량 교수, 홍익대 김리나 교수 등 문화재 전문가와 취재진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4일 해인사 조사



통일신라 목불로 밝혀진 해인사 법보전 비로자나불좌상(오른쪽)과 그 안에서 발견된 목서(왼쪽)에 '中和三年'이라는 글자가 선명하다.

전에서 비로자나불좌상과 명문을 공개했다.

비로자나불의 내부 등 쪽에 선명하게 적힌 명문은 오른쪽 17자 誓願大角干主燈身○彌右座紀主燈身○(서원대각간주등신○미우좌비주등

신○), 왼쪽 14자 中和三年癸卯此像夏節柒金着成(중화삼년계묘차상하절칠금착성)로 돼 있었다.○는 판독 불가능한 글자

2면으로 계속

남북 신도합동법회 22일 신계사서

분단 후 첫 남북 신도단체 합동법회가 7월 22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개최된다. 중앙신도회는 7월 1일 개성서 열린 남북 불교 신도단체 합동법회 관련 2차 실무회의에서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과 이 같은 사실을 합의했다고 7월 5일 밝혔다.

중앙신도회와 조불련은 남북신도단체 첫 합동법회의 명칭을 '6·15 공동선언실천, 조국통일기원 북남(남북)불교도합동법회'로 확정하고 이후 매년 개최하는 것을 합의했다.

김지연 기자 jyang@buddhapia.com

무료 홈페이지 제작 교육 16일, 불교단체 대상

'현대 불교 미디어 센터(HBMC) 부다피아(www.buddhapia.com)에서는 7월 16일 오후 2~5시 서울 종로구 청운동 분사 연수원 2층 사무실에서 제2차 불교단체 대상(복지/공익)단체 우선) 무료 홈페이지 제작 교육을 실시한다.

'웹페이지 빌더(Web Page Builder)' 교육을 원하는 단체들은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02)2004-

푹푹 찌는 무더위!!
즐겁게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www.yosiamun.com

'할'

대단 달콤한 음식이 들더라도 버리고

선업을 귀우세요 그것이 더 평안하고 달콤하죠

그림·조태호

묘허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7월 15~21일 서울 법륜사 불일미술관
현대불교 (02)2004-8281, 불일미술관 (02)733-5322

여시아문

소설가 황석영 씨가 추천하는 화제의 책
잊혀진 우리의 가람터,
그 옛 주소로 가다!

시인 장지현의 전국 폐사지 순례기

잊혀진 가람터

시인 장지현 씨가 강원도 양양에서 제주도까지 전국에 흩어진 폐사지 20여 곳을 직접 밟아 노래했다. 지금은 사라진 절터 담사기 '잊혀진 가람터'는 그가 지난 4년여 동안 발품을 팔 흔적. 이제는 '철세들의 안거지'로나 쓰이는 스러진 사찰들의 현재 모습이 여운을 남긴다. - 조선일보

온라인·통신판매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연수원)
연락처 02)2004-8200(대) 02)2004-8220(여시아문) Fax:02)737-0696

여시아문

글·장지현, 사진·고영배 | 4·6배판 변형 | 360쪽 | 가격: 23,000원